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이철우 도지사, 지멘스헬시니어스와 MOU체결.. 투자유치활동 전개 지멘스 초음파진단 의료기기사업, 경북 도내 투자 확대 Lam Research, GE Digital 등 미국 글로벌 기업 투자 요청	투자유치실	 사진별첨
② 이철우 도지사, 실리콘밸리 SF, LA NY 한인기업인과 만남 이어가.. H-마트, LA한인축제 활용한 농·특산물 수출확대 협의 한인기업 청년일자리 및 인턴 확대 방안 논의	국제통상과	 사진별첨
③ 김부겸 행안부장관, 구미·칠곡 지역 민생 행보 구미 지역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인과 현장 간담회 가져... 왜관 전통시장 방문, 영세상인 애로청취 및 지역사랑상품권 홍보	일자리 청년정책관	 사진별첨
④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600억원 지원 청년농부 창농지원, 농식품 수출, 사업운영, 시설비 등 지원 금리 1%(운영자금 2년거치 3년상환, 시설자금 3년거치 7년 상환)	농업정책과	
⑤ 경북도,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사업에 8개소 선정... 전국 최다 문체부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에 8개소 확정	관광정책과	사진별첨
⑥ 경북도 설날 앞두고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14~18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 197개소 안전점검 실시	사회재난과	
⑦ 겨울철 농업기계 점검·정비로 올해 농사 준비 농업기계를 점검 정비해 기계의 고장은 줄이고 수명은 늘리고	농업기술원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11(금)】	담당부서	투 자 유 치 실			
		작 성 자	실 장	황 중 하		
			팀 장	이용구	주무관	김승기
		연 락 처	054-880-4619			

이철우 도지사, 지멘스헬시니어스와 MOU체결... 투자유치활동 전개

- 지멘스 초음파진단 의료기기사업, 경북 도내 투자 확대 -
- Lam Research, GE Digital 등 미국 글로벌 기업 투자 요청 -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전자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9 참관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실리콘밸리로 이동해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인 지멘스 헬시니어스(Siemens Healthneers), 반도체 장비기업 램 리서치(Lam Research),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GE Digital사 임원을 면담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을 이어갔다.

경북도와 지멘스헬스니어스는 10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초음파 진단기 사업본부에서 경북도내 투자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초음파 사업본부의 톰슨(Mr. Bob Thompson) 대표, 펑크(Mr. Sebastian Funk) 재무담당 임원을 면담하고 초음파 진단 기기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투자 및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포항에서 트랜스듀서, 카테타를 생산중인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전 세계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밀 의료를 확대하고 진료 방식을 전환하며, 환자 경험을 향상하고 의료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방향으로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료 기술의 선두주자인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진단과 치료 이미징, 진단검사 의학분야와 분자진단 분야의 핵심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고 있으며, 디지털 의료서비스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2018년 9월 30일부로 마감된 2018년도 회계연도에 134억 유로화의 매출과 23억 유로화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에 약 5만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지멘스헬시니어스 초음파기기 사업부는 포항 및 분당에 연구소를 두고 포항, 경주, 성남에 생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의료 기관과 POSTECH, KAIST 등 국내 대학과 협력해 최신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트랜스듀서, 카테타(허벅지절제후 정맥을 통해 심장까지 볼 수 있는 삽입형 튜브) 등 초음파 진단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경북도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헬스케어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개발 중인 의료기기야말로 경북도가 역점을 두고 발전시켜야 할 산업” 이라고 강조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인 Lam Research사 본사를 방문해 메이클(Mr. Scott Meikle) 글로벌 고객운영 부회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구미를 중심으로 한 경북도의 반도체 장비산업 생태계와 제조기업 현황을 소개하고 램 리서치와 경북소재 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 및 반도체장비 공동개발 방안을 설명하고 향후 경북도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세계 3대 반도체 장비기업인 램 리서치는 1980년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해 1989년 한국법인을 설립한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매출이 글로벌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16개국에서 약 1만 2천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는 항공, 헬스케어, 광업, 오일, 가스, 발전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GE(General Electric)의 자회사이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서비스를 기반으로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기업인 GE Digital 본사를 방문했다.

GE Digital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선구적으로 도입한 기업으로 디지털 공장 가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프레딕스(Predix)’를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GE Digital의 캐린 어셔(Caryn Usher) 센터 운영 총괄과의 면담에서 발전소, 병원, 자동차부품, 물류 등의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기업들이 현실에서 최적화된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들 시스템을 경북 도내 제조 및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멘스 헬시니어스 등 글로벌 기업과의 면담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의 경북도내 투자유치 가능성을 모색하고 도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이 이들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계획

I

행사개요

일 시 : 2019. 1. 10(목) 10:00~11:20

장 소 : (美)지멘스 초음파진단기 사업본부(MVIS)

※ 주 소 : 685 East Middlefield Road Mountain View, CA 94046

참석인원 : 15명

○ 도지사, 투자유치실장, 국제통상과장 등

○ Bob Thompson 초음파사업부 총괄, Sebastian Funk 재무책임 등

협약내용 : 도내 의료기기분야 투자 및 연구개발 공동협력

II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도지사 일행 도착	
10:00~10:10	10'	▷ 지멘스 환영 인사	
10:10~10:20	10'	▷ 인사말씀	
10:20~10:35	15'	▷ 회사소개 ▷ 도내 투자 및 협업 내용 설명	
10:35~10:50	15'	▷ 투자양해각서 체결 및 기념촬영	
10:50~11:10	20'	▷ 이노베이션 센터 투어	
11:10~11:20	10'	▷ 방문 기념촬영	본관 건물 앞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11(금)】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국제통상과			
		작 성 자	과 장	박 노 선		
			팀 장	구광모	주무관	임홍식
		연 락 처	054-880-2713			

이철우 도지사, 실리콘밸리 SF, LA, NY 한인기업인과 만남 이어가..

- H-마트, LA한인축제 활용한 농·특산품 수출확대 협의 -
- 한인기업 청년일자리 및 인턴 확대 방안 논의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일행은 10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 및 샌프란시스코(SF), 로스앤젤레스(LA), 뉴욕(NY) 지역내 한인기업인, 경북도 자문위원 등 관련 인사들과 투자, 일자리 및 통상 관련 경제교류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지형 실리콘밸리 KOTRA관장을 비롯한 김원걸 실리콘밸리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윤중희 대구경북향우회장, 권일연 H-마트 회장, 경북도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경북도 4차 산업혁명과 연계산업 발굴 및 투자유치 협력방안, 지역 우수 농특산품 기업체의 LA한인축제 기업전시회 참가(20개사), H-마트사, Active USA사 등 자문위원 기업체를 활용한 청년 해외일자리사업 및 청년인턴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대학이 소재해 있으며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심지로 유명하다. 또한 애플컴퓨터사, 휴렛팩커드, 인텔, 페어차일드, 텐덤 등 4천여 개의 전자관련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특히, 경북 농특산품 수출과 해외인턴사업을 협력하고 있는 H-마트사의 권일연 회장과 이 지사의 인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무부지사 시절 도내 중소기업 10여개사를 인솔해 캐나다와 미국시장을 개척할 당시 경북도와 H-마트간 수출협약을 체결해 경북도

농특산품의 미국진출 계기를 마련하여 지난해 말까지 2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또한, H-마트와 Active USA사를 통해 연간 지역의 청년인력 50여명이 해외인턴십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많은 청년 대학생들의 해외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실리콘밸리의 청년스타트업 기업 등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업을 벤치마킹해 향후 지역에 소재한 청년스타트업 발굴과 첨단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해외 출향 기업인 및 한인상공인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겠다” 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11(금)】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청년정책관			
		작성 자	정책관	박 성 근		
			팀 장	황진련	주무관	문홍부
		연 락 처	054-880-2642			

김부겸 행안부장관, 구미·칠곡 지역 민생 행보

- 구미 지역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인과 현장 간담회 가져... -
- 왜관 전통시장 방문, 영세상인 애로청취 및 지역사랑상품권 홍보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경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의 애로를 직접 살피기 위해 11일(금) 구미산업단지와 칠곡 왜관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구미시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아파트 관리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대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기업인들은 구미 경제의 장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생업의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구미 경제회생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경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확대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칠곡군 왜관전통시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상인들로부터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상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즉석에서 육류와 생선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을 위로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적

으로 사용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장관과 모든 일정을 함께한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 현안들을 건의하고 구미 국가5산업단지 분양 저조(23.8%) 등 지방의 어려운 여건과 국가균형발전을 감안해 수도권공장총량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북 구미-칠곡 지역경제 현장 방문 계획(안)

□ 개 요

- 일 시 : '19. 1. 11.(금), 11:00~14:15
-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 참 석
 - (행안부) 장관님, 지방재정경제실장, 대변인
 - * 고용부, 중기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 참석
 - (경북도) 행정부지사, 구미부시장, 칠곡군수, 도 중소벤처기업과장 등
- 내 용
 -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소상공인 대표 등 관계자와 간담회
 - 칠곡군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청취 및 활성화 캠페인(구매활동)
- 장관님 하실 일 : 간담회 참석, 현황보고 등 청취, 캠페인 및 현장점검

□ 세부 시간 계획

시 간		방 문 내 용	장 소	비 고
09:05~10:30	85'	△ 이동(서울역→김천구미역)		• KTX407 • 영접 : 부지사, 부시장
10:30~11:05	35'	△ 이동(김천구미역→간담회장)		
11:05~12:15	70'	△ 지역 민생경제 간담회 -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정책 설명	한국산업관리공단 대경본부 회의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 12여명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기관
12:15~13:10	55'	△ 오찬 간담회	공단동 식당	
13:10~13:40	30'	△ 이동(구미 → 칠곡 왜관전통시장)		
13:40~14:40	60'	△ 지역사랑상품권 홍보 - 생활공감모니터단 등(10여명)	왜관시장	• 활용 확대 캠페인, 물품구매(정육 등)
14:40~15:20	40'	△ 이동(칠곡 왜관시장→동대구역)		
15:35~17:12	97'	△ 이동(동대구역→서울역)		• KTX140

행사 1

구미 지역 민생경제 간담회 및 오찬

□ 민생경제 간담회 개요


- 일 시 : '19. 1. 11.(금), 11:00 ~ 12:15(75')
- 장 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컨퍼런스룸
- 참석대상 : 행정안전부 장관님
 - (행안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대변인, 지역일자리경제과장
 - (중 앙)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장,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등
 - (경북도) 행정부지사, 중소벤처기업과장 등
 - (구미시) 구미부시장, 경제기획국장, 정책보좌관

□ 주요내용

- 지역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책 소개
 - *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②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 지역 기업인,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및 질의·응답

□ 세부 시간계획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1:00~11:05	5'	• 사전 티타임	경북 부지사, 구미 부시장
11:05~12:15 (70')	5'	• 인사말씀	장관님
	20'	• 주요 정부지원대책 보고(2건)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소개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추진단장
		②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소개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
	40'	•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5'	• 마무리말씀	장관님
12:15~12:20	5'	• 도보이동(행사장→오찬장)	
12:20~13:10	50'	• 오찬 간담회	생대구탕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11(금)】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작성 자	과 장	임 현 성		
			팀 장	조환철	주무관	김기욱
		연 락 처	054-880-3318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600억원 지원

- 청년농부 창농지원, 농식품 수출, 사업운영, 시설비 등 지원 -
- 금리 1%(운영자금 2년거치 3년상환, 시설자금 3년거치 7년 상환) -

경상북도는 농업유통구조, 농촌일자리 등 당면한 농촌 현안 해결을 위해 도내 농어업인(단체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2019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사업신청(283명)을 받아 지원자격 검토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278명)해 시군을 통해 4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창농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업체 지원 등 도자체 사업에 140억원,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와 구제역·AI 등 현안 해결을 위해 6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개인 2억원, 단체 5억원 한도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소모성 농어업자재, 소형 농기계 등 운영자금(2년거치 3년상환)과 농어업시설, 대형농기계, 선박 교체 등 시설자금(3년거치 7년상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도, 시군, 농협, 수협의 출연을 받아 지금까지 2,171억원을 경북도 자주재원으로 조성해 운영 중이며, 2018년 말까지 5,605억원(11,267건)을 지원해 도내 농어업경영 안정과 농가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시대의 문제인 농촌 고령화와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농부들이 농촌으로 많이 유입되어야 하지만 젊은이들이 실제 농촌에 정착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이 기반 없는 청년들의 발판이 되어 농촌에 새바람을 불어올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시대를 반영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도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11(금)】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작성 자	과 장	김 문 환		
			팀 장	김경숙	주무관	제갈부옥
		연 락 처	054-880-3189			

경북도,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사업에 8개소 선정.. 전국 최다

- 문체부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에 8개소 확정 -

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19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8개소(개인가옥 6개소, 밀집 및 마을단위 2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 전국 27개소 중 8개소 선정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매년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되어 있는(사업자등록 필수)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도를 통해 문체부에서 공모·선정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는 각 3천만원(국비 50%), 6천만원(국비 50%)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다양한 옛 문화 정서와 고품격 체험형 전통한옥 숙박은 물론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색다른 놀이문화를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내에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2개 시군 189가옥에 37억원을 지원해 165만여 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통한옥에서의 고택음악회, 전통음식 및 전통혼례 시연, 다도·예절·서예 등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한옥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휴식이 될 수 있는 힐링효과가 기대된다.

경북도는 전통한옥 운영자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하는 한편, 전통문화를 점차적으로 더욱 계승·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문환 경북도 관광정책과장은 “경북도는 전국적으로 많은 전통한옥을 보유하고 비중이 큰 만큼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지원 운영사업의 활성화 및 대중화에 다각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북의 우수한 전통한옥을 알리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2019년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원사업 선정결과(경북도)

구 분	시군명	한 옥 명	사 업 내 역	사 업 비 (천원)
8개소 (개인한옥 6개소 / 밀집지역 및 마을단위 2개소)				
밀집지역	안동시	(재)행복전통마을(밀집)	- 전통음식체험(복어보푸라기, 안동국시 등)	60,000
마을단위	청송군	덕천1리마을(마을)	- 고택음악회, 한복체험, 전통놀이 - 공예체험(천연염색, 도자기) - 전통음식체험(떡매치기, 찹쌀고추장)	60,000
개인한옥	안동시	선성현한옥체험관	- 전통제식, 전통음식체험(두부, 안동식혜) - 도시락 콘서트, 홍보물 제작	30,000
	안동시	만소당	- 길놀이 대동체험, 차례상 차리기 - 전통음식(차례상, 송편, 한과, 다식 등) - 전통민속놀이체험, 홍보물제작, 인건비	30,000
	안동시	안동군자마을	- 전통한옥이야기 및 고택음악회 - 홍보물 제작	30,000
	안동시	오류헌	- 고택음악회, 한지·짚풀공예체험 - 전통악기체험(장구), 홍보물 제작	30,000
	안동시	수곡고택	- 전통혼례 시연, 전통공예(목화) 체험 - 홍보물 제작	30,000
	청송군	청원당	- 편지쓰기(붓, 편지지, 먹) - 선비 및 다도체험, 홍보물 제작	30,000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11(금)】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작성 자	과 장	강 진 태		
			팀 장	류재욱	주무관	한 식
		연 락 처	054-880-2334			

경북도 설날 앞두고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 14~18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 197개소 안전점검 실시 -

경상북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14일부터 18일까지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판매시설, 여객시설, 공연시설, 목욕장 및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19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을 총괄단장으로 관련부서 공무원은 물론 전기·가스안전 전문기관의 민간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 객관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동, 보 등 주요부재 및 전기, 가스, 소방 등 설비 시설 관리실태, 시설 및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 연휴기간 중 예방활동 강화 및 비상연락체계 등 유사시 대응계획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이용자가 몰리는 탓에 항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와 연휴기간 중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비상 대응체계 확립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해 조기에 위험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용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 강릉 펜션 가스사고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사전점검 및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면서

“도민들의 편안한 명절을 위해 직접 현장을 챙겨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19. 1. 11(금)】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기획교육과			
		작 성 자	과 장	이 동 균		
			팀 장	전광표	주무관	김태호
		연 락 처	053-320-0268			

겨울철 농업기계 점검·정비로 올해 농사 준비

- 농업기계를 점검 정비해 기계의 고장은 줄이고 수명은 늘리고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농업기계 점검정비와 보관요령에 대해 홍보하고, 농업기계마다 보관방법이 다른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농업기계는 녹이 발생하거나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름칠을 한 후 가능하면 건조한 실내에 보관하고, 실내 보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햇빛, 눈, 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워 포장된 평지에 보관한다.

각종 볼트와 너트 등은 잠김 상태를 점검해 풀려 있으면 바로 조여주고, 클러치와 레버, 벨트는 풀림상태로 보관한다.

각종 오일 상태를 점검해 필요시 교환하며, 교환 후에는 5분정도 가동해 각부에 오일이 공급되도록 한다. 휘발유는 연료탱크, 기화기 등에서 완전히 빼내고, 경유는 물이나 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탱크에 가득 채운다.

냉각수는 완전히 빼내고 핸들 등 잘 보이는 곳에 ‘냉각수 없음’ 표시를 부착해 냉각수 없이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단, 부동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액의 농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교환한다.

타이어는 고임목을 고여 땅에 닿지 않게 하거나 타이어 압력을 표준보다 조금 더 넣어서 보관한다. 배터리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단자를 분리하고 단자에 윤활유를 도포하며 월1~2회 정도 엔진을 작동시켜 배터리가 충전될 수 있도록 한다.

농업기계는 기종별로 관리요령이 다른데, 트랙터는 장기보관 시 작업기를 분리하고 리프트 암을 최고 위치로 올려놓고 웨이트는 떼어놓고, 클러치 하우스 아래 배수 플러그를 풀어 물을 뺀다.

콤바인은 탈곡부, 곡물탱크 내부의 남은 곡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예취클러치레버, 탈곡클러치레버 등 각 레버는 ‘꽂김’ 위치로 한다.

경운기는 주클러치레버를 ‘꽂김’ 위치로 하며 브레이크를 체결하진 않는다. 시동핸들로 엔진을 회전해 압축상태(상사점)로 보관하는데 압축 상태로 두면 밸브가 닫혀 실린더 내부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취기는 연료탱크를 비우고 시동을 건 후 저속으로 공회전을 시키고 기화기 밑에 컵을 받쳐 드레인 볼트를 풀어 휘발유를 빼고 시동이 끈 후 보관한다.

이동균 경북도농업기술원 기획교육과장은 “농업기계 관리를 소홀히 하면 기계수명이 짧아지고 자주 고장이 나게 된다. 금년 농사를 위해 겨울철 농업기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약 고장이 나면 즉시 제조업체 지정수리점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정비해야 한다” 고 말했다.